『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8
pp.143-159 ISSN : 1229-9618

현대중국어 RVC구문의 중의현상과 사동문으로서의 성립조건

김은주*

【목 차】

1. 서론
2. RVC구문의 교체현상과 의미적 중의
   1) 통사적 교체현상
   2) 의미적 중의
3. RVC사동문의 성립조건
   1) 외재논항- 직접적 외부 요인
   2) 내재논항- 피사동사건의 주체
4. 결론

【초록】

본고는 동일한 통사적 양상으로 실현되는 RVC구문이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표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들의 의미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능격동사, 비대격동사로 분류되는 RVC는 논항구조와 의미역에 따라 '자동'과 '타동', '사동'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타동문과 사동문은 통사적으로도 동일한 결합가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의미적 차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RVC 타동구조는 <AGENT, THEME>의 논항구조를 통해 단일 사건 내에서 동작의 행위자와 대상의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미구조이다. 반면, RVC 사동구조는 <CAUSER, CAUSEE>라는 두 논항을 취하여 복합사건 내에서 원인을 유발하는 사동주와 이로 인해 결과사건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피사동주의 작용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구문의 논항관계와 의미역, 사건구조를 통해 RVC 타동문과 사동문의 의미적 구분 문제와 RVC 사동문의 의미적 특징을 조명하였다.

【키워드】 결과보어, 동결식, RVC, 능격동사, 비대격동사, 타동, 사동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kej85@korea.ac.kr)

1. 서론

현대중국어의 RVC(Resultative Verb Compound;이하 RVC로 지칭)는 하나 이상의 서술구조를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동사복합어의 일종으로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분이다. RVC는 넓은 의미에서 동사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표시하는데, 동작이나 변화의 원인을 나타내는 1차 술어 'V1'과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2차 술어 'V2'가 결합된 'V1+V2'의 형태로 나타나며, 생산성이 매우 높고 그 통사적 적용범위 또한 넓다.

(1) a. 张三喝醉了。장삼은 취했다.
b. 张三喝醉了酒。장삼은 술을 마시고 취했다.
c. 酒喝醉了张三。술이 장삼을 취하게 만들었다.
(王玲玲 2002:36)

이상의 예문은 술어성분이 모두 RVC로 이루어진 구문이지만 논항구조나 의미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a)는 '张三'이 행위의 주어가 되는 자동의 형식이고, (1b)는 행위주 '张三'이 대상 목적어에 해당하는 '酒'를 마시고 취했다는 사건을 표현하는 타동의 형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형식 외에도 한 가지 형식이 더 존재하는데, 바로 (1c)의 예문과 같이 통사적으로는 주어와 목적어를 갖는 타동의 형식에 속하지만 의미적으로는 행위자인 '酒'가 대상인 '张三'에게 모종의 행위나 상태를 유발하는 사동의 형식으로 표층적으로는 타동문과 동일한 결합가를 가지지만 분명한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타동'이라는 개념은 통사적으로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1b)와 (1c)를 모두 타동의 범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타동문과 사동문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논항을 갖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동일한 논항구조로 이루어진 RVC구문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2) 張三追累了李四。(沈家煊 2004:3)
a. 장삼은 이사를 쫓았고, 장삼은 피곤했다.
b. 장삼은 이사를 쫓았고, 이사는 피곤했다.

이상의 구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2a)의 해석과 같이 NP1을 일반적인 행위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전형적인 타동의 형식이다.[1] 또 다른 한 가지는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1이 행위의 주체이자 원인의 유

1) 본고에서 다루는 의미역은 크게는 행위주(Agent), 대상(Theme), 경험주(Experiencer)로 분류하고, 사동문의 경우 사동주(Causer)와 피사동주(Causee)로 분류함을 밝힌다. 특히 피행위자(Petient)의 경우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상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a. 행위주(Agent):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동작을 야기하는 개체
b. 대상(Theme):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동작이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체

발자인 사동주가 되고, NP2가 행위를 겪게 되는 피원인격인 피사동주로 나타나는 사동의 형식으로 (2a)와는 또 다른 의미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2] 이와 같이 동일한 표층 구조의 RVC구문에 대해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1c)나 (2)와 같은 구문이 단순히 타동문라는 한 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없는 고유의 의미자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동일한 통사 구조를 지닌 RVC구문에서 발생하는 의미적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타동과 사동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RVC구문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 구문과 사동구문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아울러 RVC구문에 나타나는 타동과 사동의 중의현상을 통해 두 구문의 논항구조와 의미관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고, 사동문으로서 RVC구문의 판단 조건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RVC구문의 교체현상과 의미적 중의

현대중국어의 RVC는 결과보어(结果补语), 동결식(动结式), 사성식(使成试) 등으로도 불리며, 비록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명칭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바로 '결과'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RVC는 두 개의 어휘적 성분이 결합된 복합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V1'과 결과성분을 나타내는 'V2'를 포함한다.[3] 이렇게 두 개의 어휘적 요소로 결합된 RVC는 V1과 V2의 결합이 자유롭고 매우 생산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打伤, 惊醒, 抓破, 吃饱' 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술어인 'V1'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술어인 'V2'는 결과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생산된 동일한 RVC가 문장에서 술어성분을 담당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견된다.

---

c. 경험주(Experiencer):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개체
d. 사동주(Causer):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사동행위의 원인 또는 원인자
e. 피사동주(Causee): 어떤 행위를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피사동사건의 행위자

2) 沈家煊(2004:3), 熊学亮·魏薇(2014:34), 玄明(2018:54) 등은 이러한 구문에 대해 다른 또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바로 '李四'가 행위주이자 경험주의 역할을 하고, '张三'이 대상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일종의 '경험주가 도치된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주와 대상목적어가 도치된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사는 장삼을 쫓았고, 이사는 피곤했다.'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사동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도 함께 언급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형적인 사동의 의미구조에 해당하는 'NP1이 NP2에게 VP하게 하다(VP의 상태로 만들다)'로 표상되는 구문을 사동의 기본 형식으로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3) RVC의 결합방식에 대해 范晓(2000:263)는 'V1'은 일반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동작성 술어이고, 'V2'는 상태성 술어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으며, 沈阳·何元建·顾阳(2001:135)에서도 'V1'은 상적으로 활동상태를 나타내는 동작성 동사로 이루어지고, 'V2'는 상태나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 'V1'과 'V2' 결합방식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3) a. 老鼠吓跑了。
쥐가 놀라서 달아났다.
b. 小明吓跑了老鼠。
小明은 쥐를 놀래켜 달아나게 만들었다.
c. * 好几只蚊子都打死了。
d. 小明打死了好几只蚊子。
小明은 많은 모기들을 때려 죽였다.
(沈阳·何元建·顾阳 2001:136)

이상의 예문에서 술어성분에 해당하는 '吓跑', '打死' 등은 모두 동작을 나타내는 'V1'과 결과를 나타내는 'V2'로 이루어진 복합어 구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이 구문을 형성할 때 예문 (3a)의 술어 '吓跑'의 경우 자동형식과 타동형식이 모두 가능한 반면, (3c)의 '打死'의 경우 오직 타동의 형식으로만 구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동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4] 그렇다면 왜 '원인과 결과'라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형성된 RVC가 구문을 이룰 때 각기 다른 통사적 성격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RVC가 구문 속에서 어떠한 논항 선택 원칙과 통사적 원리를 통해 술어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사적 교체현상

현재까지 RVC의 구문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RVC는 주로 자동(intransitive)과 타동(transitive), 능격동사(ergative verb)와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라는 구분은 문법관계와 격의 대응관계에 대한 구분으로, 본래 타동문의 목적어이어야 할 동사가 자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을 때 이러한 동사를 '능격동사' 또는 '비대격동사'로 분류하는 것이다.[5] 다음에서 RVC구문의 교체현상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4) a. 姑娘哭了。 / *哭了一个姑娘。
아가씨가 울었다.
b. 问题暴露了。/ 暴露了不少问题。
문제가 폭로되었다. /적지 않은 문제가 폭로되었다.
(沈陽·Sybesma 2002:306-307)

---

4) RVC의 문법관계를 다룬 다수의 논의에서 사동문을 타동형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동문과 타동문을 동일하게 분류함으로써 자동(intransitive)과 대립되는 문법적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5) 이렇듯 능격동사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와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지현(2006:102)은 능격성이란 대격부여 능력의 유무에 근거한 타동사와 자동사 간의 전환이라는 통사적인 관점의 '비대격성'에 '사역과 기동 간의 전환'이라는 의미적인 관점이 덧붙여진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능격동사는 모두 비대격동사로 분류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비대격동사가 능격동사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沈陽·Sybesma(2002:306-307)는 현대중국어의 동사 가운데 자동 구조와 자동과 타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를 대조하였는데, 예문 (4a)와 같이 일반적으로 술어 동사와 관련이 있는 행위자 논항이 주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구조를 자동사 구조로, (4b)와 같이 하나의 대상논항만을 취하지만 대상논항이 동사의 앞 또는 주어의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능격구조로 분석하였다.[6]이러한 동사의 능격성은 RVC구문의 통사적 교체와도 연관이 있는데, RVC를 술어동사로 하는 구문은 행위주 논항이 아무런 목적어 없이 주어의 위치에 출현하여 자동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고, 대상논항의 삽입에 의해 타동화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의 외재논항(external argument)이 더 삽입되어 사동(causative) 구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7]

(5) a. 小宝宝哭醒了。
아기가 울며 잠에서 깼다.
b. 一场噩梦哭醒了小宝宝。
악몽이 아기를 울면서 깨게 만들었다.
(Huang 2006:9)

다수의 연구에서 현대중국어의 단일동사에 대해 능격성과 비대격성을 인정하듯 RVC 역시 바로 이러한 능격동사의 자질을 가진 동사로 분석하고 있는데(Cheng & Huang 1994, 沈陽·何元建·顧陽 2001:136, 沈陽·Sybesma 2002, 曾立英, 2006 외 다수), 어떠한 성격의 RVC가 자동-타동의 교체, 기동-사동의 교체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로 논항의 결합가와 동사의 분류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자동구조 RVC구문과 타동구조 RVC구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상논항에 해당하는 내재논항(internal argument)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으며, 내재논항과 외재논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타동구조의 2항 RVC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

(6) a. 孩子们吃饱了饭。(王玲玲 2001:50)
아이들은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
b. 张三打碎了花瓶。(赵阳 2006:83)
张三은 꽃병을 깨뜨렸다.

이상의 예문은 '孩子们'과 '张三'을 외재논항으로 가지는 RVC구문으로 각각 대상목적어에 해당하는 '饭'과 '花瓶'을 내재논항으로 가진다. 이렇게 외재논항과 내재논항을 참여항으로 가지는 RVC구문은 구조적으로는 모두 타동문의 범주에 속한다.[8] 그런데 두 구문의 내부적인

6) 능격동사와 대조적으로 자동문에서 행위주 논항을 주어로만 가질 수 있는 동사를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7) 이러한 현상을 기동과 사동의 교체라도고 하는데, Huang(2006:9)은 중국어의 단일동사와 복합동사구문 모두에서 이러한 기동-사동의 교체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교체에 참여하는 동사는 모두 비대격동사이며, 비능격동사는 사동화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8) 범언어적으로도 타동과 사동의 범주와 속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남기심(2001)은 '사동사'란 주동사인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에 사동접사 등이 붙어 이러진 '타동사'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주행(1993)은 사동문과 타동문의 구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자를 구분하였는데, 만약 사동사가 사동성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결코 동일한 형식의 구문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6a)의 경우 단지 행위자와 대상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타동의 의미구조라면, (6b)는 원인자와 대상의 작용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동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미적 차이는 어떠한 요인을 통해 구분할 수 있는가? 다음의 예문을 통해 RVC 타동문과 사동문의 의미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7) a. 房东喝醉了酒。 (王玲玲 2001:50)
집주인은 술에 취했다.
b. 我吃饱了饭。 (玄明 2018:61)
나는 밥을 먹고 배가 불렀다.

(7)의 구문 역시 (6)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참여항을 가진 RVC구문이다. 그러나 예문 (7)의 경우 모두 다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외재논항이 되는 '房东'과 '我'는 사건의 행위자이자 경험자가 될 뿐 결과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자인 사동주 논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논항이 되는 '酒'와 '饭' 역시 단지 동작의 대상일 뿐 원인사건에 의해 결과사건을 겪게 되는 피사동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의 외재논항과 내재논항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동일한 RVC구조라고 하더라도 (6b)와 같은 사동구조에서 외재논항 'NP1'과 내재논항 'NP2'는 술어동사로부터 각각 '사동주'와 '피사동주' 의미역을 부여받게 되며, (7)과 같은 타동구조에서 NP1과 NP2는 각각 '행위주'와 '대상'의 의미역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동구조와 사동구조의 논항구조와 의미역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표1> 타동구조와 사동구조의 논항구조와 의미역[9]

	외재논항	내재논항		외재논항	내재논항
타동구조	(<x>	, y)	⇒	(행위주/경험주 ,	대상)
사동구조	(x	, y)	⇒	(사동주	, 피사동주)

이와 같이 RVC 사동구조와 RVC 타동구조는 표층적으로는 동일한 논항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 논항들이 갖는 의미역에 따라 상이한 의미구조로 분석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차이가 '타동'과 '사동'이라는 의미적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2) 의미적 중의성

(causativity)은 있지만 피사동주의 수행성(performativity)이 없다면 그 문장은 사동문이 될 수 없다고 구분하였다. 즉 형용사나 비대격 동사일 경우 목적어 논항은 대상(theme)이 될 뿐 사동의 의미는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타동과 사동은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한 범주로도 여겨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문법범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고는 타동과 사동이 분명히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타동과 사동은 의미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9) 변항 x,y는 각각 외재논항과 내재논항을 의미하며, 내포 내재논항은 <>로 표시한다.

앞선 논의에서 타동의 의미구조를 갖는 RVC구문은 '행위주'와 '대상' 간의 작용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RVC구문의 경우 외재논항에 부여되는 의미역이 단순히 행위를 하기만 하는 '행위주'가 아닌 결과사건을 유발하는 '사동주'가 되어야 하고, 내재논항에 부여되는 의미역은 반드시 결과적 상태까지 나타낼 수 있는 '피사동주'로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하였다.

그런데 일부 RVC구문의 경우 RVC와 논항의 의미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8) 张三追累了李四。(沈家煊 2004:3)
a. 장삼은 이사를 쫓았고, 장삼은 피곤했다.
b. 장삼은 이사를 쫓았고, 이사는 피곤했다.
(9) 张三骑累了马。(王玲玲 2001:58)
a. 장삼은 말을 탔고, 장삼은 피곤했다.
b. 장삼은 말을 탔고, 말은 피곤했다.

이상의 두 구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a)류의 해석과 같이 NP1을 일반적인 행위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의미적으로는 타동의 형식에 속한다. 두 번째는 (b)류와 같이 NP1이 행위의 주체이자 원인의 유발자인 사동주로, NP2를 행위를 겪게 되는 피원인격인 피사동주로 나타나는 사동의 형식에 해당한다. (a)류의 해석과 같이 만약 타동의 의미구조를 가질 경우 'V2', 즉 '累'는 행위자인 'NP1(张三)'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나 (b)류의 해석처럼 사동의 의미구조로 해석될 경우, 'V2(累)'는 피사동주가 되는 'NP2'인 '李四'와 '马'를 지향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논항관계와 의미관계를 간략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0) A류(타동문) : NP1(Agent) + VP + NP2(Theme)
NP1+V1+V2+NP2(V2→NP1)
(11) B류(사동문) : NP1(Causer) + VP + NP2(Causee)
NP1+V1+V2+NP2(V2→NP2)

그렇다면 (8), (9)와 같은 구문에서 이러한 의미적 중의(ambiguity)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RVC의 중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왔다(cheng and huang, 1994; Cheng1997; Huang, 1992; Li, 1995, Sybesma & 沈阳, 2006; 沈家煊,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중의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단언하기 어려운 것은 복합어 구조인 'V1+V2'의 결합양상과 통사적 의미관계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0] 다음에서 중의문과 기타구문의 비교를 통해 RVC구문의 논항관계와 의미역관

10) 중의가 나타나는 RVC구문중에는 '医生等急了我。(何元建 2010:279)'와 같은 구문도 자주 거론되는데, 이 같은 구문도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医生等我, 医生急了(의사가 나를 기다렸고, 의사는 급했다)'이고, 두 번째는 '我等医生, 我急了(나는 의사를 기다렸고, 나는 급했다)'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본고의 분류에 따르면 전자는 타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후자는 사동의 의미 범주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수사도치구조(受事倒置结构)'에 해당하므로 논의에서 제외

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2) a. …她读懂了女儿的话,… 그녀는 딸의 말을 읽고 이해했다.
b. …我们打死了一个人,… 우리가 한 사람은 때려서 죽게 했다.
(BCC 코퍼스)

(12)의 예문은 RVC를 술어로 두 개의 논항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표층구조 상으로는 중의문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의 예문은 어떠한 중의도 발생하지 않는데, 각 논항과 V1, V2가 어떠한 의미역 관계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12a)의 경우 술어가 되는 'V1('读)'과 'V2(懂)'는 NP1에 해당하는 명사성 성분 '她'를 외재논항으로 가지는데, '她'는 'V1(读)'의 행위주이면서 동시에 'V2(懂)'의 경험자의 의미역을 갖게 된다. 따라서 (12a)에서 V1과 V2는 NP2와는 관계가 없고, NP2는 단지 '读懂'의 대상역이 된다. 이와 같이 RVC구문에서 행위주와 경험자가 일치된 구조로 나타날 때, 사동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으며 '행위주'와 '대상' 간의 작용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타동의 의미만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12b)의 경우 구조적으로는 (12a)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논항의 실현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NP1에 해당하는 '我们'은 'V1(打)'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 NP2에 해당하는 '一个人'은 'V2(死)'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V1, V2로부터 각각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의미역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중의문에서는 V1과 V2가 어떠한 논항과 관계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듯 RVC가 부여하는 논항의 의미역에 따라 동일한 구문에 대해서도 타동과 사동이라는 의미적 차이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施春宏(2004), 熊仲儒(2004), 熊学亮·魏薇(2014) 등은 RVC구문의 중의현상과 관련해 NP1과 NP2의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성분의 유정성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NP+V+累了+NP'와 같은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중의가 NP1과 NP2의 유정성(Animacy)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두 논항이 'NP+V+累了+NP'와 같은 구조를 형성할 때 결과성분에 해당하는 '累'의 의미에 영향을 받아 중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3) a'. 张三追累了李四。
장삼이 이사를 쫓느라 지쳤다/ 장삼이 이사를 쫓아 이사가 지쳤다.
b. 张三追累了车。이사는 차를 쫓느라 지쳤다.
(熊學亮·魏薇 2014:37)

이상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 (13a)와 같은 중의문에서 (13b)와 같이 NP2 성분에 해당하는 유정명사 '李四'를 무정성 개체인 '车'로 변환하면 중의는 사라진다. 이에 대해 熊学亮·魏薇(2014:37)는 'V累'류의 보어의 의미적 특성상 유정성 주체를 요구하게 되는데, 두 개의 명사성분이 모두 유정성을 지니고 있는 개체로 충당되면 이러한 중의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문 (13b)와 같이 목적어 성분(NP2)으로 무정명사가 오게 되면, NP2 '车'는 '追'와

시켰다.

‘累’로부터 피사동주의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므로 타동의 의미구조로만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NP+V+累了+NP’에서 ‘V+累’가 주어에 위치하는 행위주의 의미역과 관계될 때 이를 ‘주어지향(主语指向)구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RVC가 주어를 지향하게 되면 동사복사구문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李纳·石毓智 1997, 王红旗 2001, 施春宏, 2004).

(14) a. 他吃饱了饭。 → 他吃饭吃饱了。(V1V2→NP1)
그는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
b. 孩子听乐了故事。→ 孩子听故事听乐了。(V1V2→NP1)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15) a. 张三追累了李四 → 张三追李四追累了。(V1V2→NP1)
장삼이 이사를 쫓느라 피곤했다.
b. 张三骑累了马。→ 张三骑马骑累了。(V1V2→NP1)
장삼이 말을 타느라 피곤했다.

이러한 전환관계에서 알 수 있듯 RVC중의문에서 V1, V2가 동시에 NP1과 의미관계를 맺는 경우 중의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타동의 의미구조가 성립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RVC가 타동문을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중의문이 사동의 의미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다음에서는 중의문의 두 가지 해석 가능성 중 사동문으로서의 판단조건을 검토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타동문과 또 다른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RVC 사동문의 의미적 특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3. RVC 사동문의 성립조건

사동에 관한 정의에서 자주 논의되는 두 가지 속성은 바로 ‘시킴’과 ‘상태변화’이다.[11]물론 사동의 범주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시킴 사동’ 또는 ‘A상태에서 B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사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만약 사동을 ‘시킴’ 또는 ‘변화’라는 사건에만 한정하고 보면 사동과 타동의 구분적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게 된다.

范晓(2000)는 사동구조는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데, 어떤 실체가 자발적으로 어떤 상황

11) 사동은 전통적으로 결합가의 증가와 같은 기제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보편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문법범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동이라는 범주를 ‘시킴’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사동 형식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우며, 타동과의 구분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상태변화’라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결과 구문과 평행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사동이라는 범주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기준을 적용한 해석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동의 개념과 정의에 관해서는 范晓(2000)와 周红(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情狀) 즉, 동작 행위, 활동 변화, 성질 상태 등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동 주체의 작용 혹은 영향을 받아 발생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동이란 단지 상태의 변화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실체와 대상 간의 인과관계가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Shibatani(1976), Comrie(1989), 김성주(2003) 등은 사동의 필수요소에 대해 사동사건과 피사동사건에 참여하는 사동주,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작용하는 원인사건(causing), 원인사건으로 인해 피사동주에게 발생하는 결과사건(caused event)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일한 표층 구조로 인해 사동과 타동의 구분이 어렵다고 할 때, 이러한 사동의 필수요소들은 결국 사동과 타동을 어떻게 구분 짓는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다음에서 사동이라는 의미구조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두 논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외재논항- 직접적 외부 요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사동사건에서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외부의 힘'은 '사동주'와 관계된 속성으로 사동주의 작용력은 사동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타동과 사동은 통사적으로 외재논항의 도입을 필수조건으로 하지만 바로 이 외재논항의 실현양상이 타동사건과 사동사건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6) a. …风刮断了电线。
바람이 불어 전화선을 끊어지게 했다.
b. 她叫醒了丈夫, 告诉了他这桩奇事。
그녀는 남편을 불러서 깨우고,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알렸다.
c. 猫抓破了沙发。
고양이가 쇼파를 할퀴어 찢어지게 만들었다.

(BCC 코퍼스)

이상의 구문에서 NP1에 해당하는 '风', '她', '猫', 즉 사동주에 해당하는 성분은 결과사건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외부요인으로서 각각 피사동주 NP2에게 결과적 상태인 '断', '醒', '破'라는 상태 또는 결과를 야기하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6)의 의미구조를 사동의 필수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Causer	Causing event		Causee	Caused event
风	刮	→	电线	断
她	叫	→	丈夫	醒
猫	抓	→	沙发	破

(17)에서 볼 수 있듯 사동구조에서 사동주 논항은 인과관계를 유발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동주의 작용에 의해 그 대상이 되는 피사동주는 직접적 영향을 받아 모종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동의 의미 구조에서 사동주의 작용력과 피사동주의 영향력은 사건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동문에서 외재논항이 되는 사동주는 대부분 명사성 성분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부적 특징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王玲玲(2001), 熊仲儒(2004), 施春宏(2007)은 RVC 사동문에 출현하는 사동주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다음에서 각 유형을 살펴보자.

(18) a. 爸爸灯亮了油灯。
아빠는 유등을 환하게 켰다.
b. 生冷食品吃坏了他的胃。
날 음식과 찬 음식이 식품이 그의 위장을 상하게 만들었다.
c. 这场饥荒饿死了不少人。
이번 기근은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施春宏 2007:21-22)

이상의 예문에서 사동주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18a)는 술어동사의 행위자가 사동주로 실현되는 외현성 사동주(overt causer)로 이루어진 구조이고, (18b)는 술어동사의 대상이 사동주의 위치에 출현하는 은현성 사동주(covert causer)로 이루어진 구문이다. (18c)는 술어동사나 보어성분과 관련이 없는 외부적 원인이 사동주 성분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외재적 사동주(external causer)를 포함하는 예로 볼 수 있다.[12] 이처럼 사동문에서 사동주는 대체로 명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정성 개체와 무정성 개체가 모두 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사동주는 사동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성분이 되고, 사동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3] 그렇다면 RVC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어떻게 피사동사건과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沈陽·Sybesma(2002), 熊仲儒(2004:472) 등은 외재논항을 포함하는 RVC구조는 '把'자구문과도 전환이 가능한데, 외재논항이 사동주로 실현되는 경우 '把'자구문으로 변환된 후에도 '사동(致使)'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14]

---

12) 이러한 유형 외에도 施春宏(2007:23), 熊仲儒(2004:472)은 동사성 성분에 대해서도 사동문에서 사동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예를 제시하였는데, '读书把眼睛近视了(독서가 눈을 근시로 만들었다)'와 구문에서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동주를 '활동사동주(active causer)'라고 명명하였다. 비록 그들이 제시한 구문도 사동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이러한 구문은 통사사동 표지 '把'로 인해 생성된 구문으로 볼 수 있으며, RVC구문과는 다른 형식적 기제를 통해 사동을 구성하는 예에 속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13) 王玲玲(2001:115-116)에서는 이러한 사동구문에 대해 행위주(施事) 성분이 이동(movement)과 병합(merge)을 통해 사동주로 인상되는 독립치사구문(独立致事句)이라고 정의하였다.

14) 熊仲儒(2004:188)는 Dowty(1979), Levin & Rappaport(1988)가 제시한 사동사건의 두 가지 명제를 근거로 '기능범주가설'을 주장하였는데, 사동구문의 두 가지 사건명제인 'Cause'와 'Become'이 중국어에서는 기능범주 'Caus(把)'와 'Bec(得)'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19) a. 这首歌唱哭了姑娘。
→ 这首歌把姑娘唱哭了。(沈阳·Sybesma 2002:313)
이 노래는 아가씨를 울렸다.
b. 我听懂了你的话。
→ 我把你的话听懂了。(熊仲儒 2004:472)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

이상의 예문은 외재논항과 내재논항을 모두 포함하는 RVC구문으로 두 구문 모두 '把'자구문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다.[15] 그러나 두 구문의 사건구조를 비교해 보면, 의미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19a)의 구조에서는 '把'는 NP1(这首歌)과 함께 NP2(姑娘)에 대해 원인이 되는 행위 '唱'을 이끌어내어 결과사건 '哭'를 유발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라는 사동의 복합사건 구조와도 부합한다. 반면, (19b)의 경우 NP1(我)은 '把'가 이끄는 NP2(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고, 단지 VP가 기술하는 사건 '听懂'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P1과 NP2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사동의 의미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16]

그러므로 사동의 의미구조를 갖는 RVC구문의 경우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把'자구문과 구조적 의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구문 모두 사동주의 행위가 피사동 행위에 직접 개입되는 인과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RVC사동문의 두 필수 논항 가운데 사동주 논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RVC사동문에서 외재논항으로 실현되는 사동주는 사동행위를 통해 모종의 결과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사동주의 작용력이 피사동사건에까지 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동의 의미가 구현되는 것이다.

2) 내재논항- 피사동사건의 주체

사동의 의미를 형성할 때 원인이 되는 사동주는 피사동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피사동주는 결과사건을 만들어낸다. Verhagen(1994:126)는 사동문에서 사동주는 단순 타동절의 행위자처럼 의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참여자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화된 실체인 반면, 사동의 피사동주는 단순 타동절의 피동자처럼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힘의 행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상태의 변화를 받는 두 번째 참여자라고 정의하였다.[17] 이처럼 사동문에서 피사동주는 타동 행위의 대상역과 공통적인 속성을

15) Li,Yafei(1995), 周红(2005)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把'자구문 역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把'를 통사적 사동표지인 '使', '叫', '让'과 동일한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일부 '把'자구문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부 '把'구문은 단순한 '처치(处置)'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미자질이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16) 이러한 '把'의 기능이 바로 소위 '처치(处置)'의 용법으로 분류되는 예들 가운데 하나이다. 王力(1985)와 Li&Tompson(1981)등은 '你把姑娘暂安置在碧纱橱里(네가 아가씨를 잠시 장막에 모셔라)', '便把手绢子打开, 把钱倒了出来(손수건을 풀어서 돈을 쏟아버렸다)'와 같은 문장에 출현하는 '把'를 '처치(处置)'의 용법으로 분류하였는데(김혜경 2010:82 참조), 이는 본고에서 말하는 타동의 의미구조와 동일한 선상으로 볼 수 있다.

지니는데 바로 '피영향성(affectedness)'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한다.

(20) a. 他跑丢了鞋子。그는 뛰다가 신발을 잃어버렸다.
b. 小狗吓哭了女孩。강아지가 여자아이를 놀라서 울게 만들었다.
(BCC 코퍼스)

<도식1> 타동과 사동의 작용의 방향[18]

(20a) 他(행위자/경험자) → → → → → → 鞋子(대상)
跑丢(E1)

(20b) 小狗 (사동주) → → → 女孩 (피사동주) → → → E1+E2
吓(E1) 哭(E2) 吓哭

→ → → 작용방향(impingement)

이상의 도식은 예문 (20)의 두 구조에서 나타나는 논항 간의 작용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도식에서 볼 수 있듯 타동구조와 사동구조에서 NP2는 모두 NP1으로부터 기인하는 일정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문에서 NP2가 단순한 행위의 대상인지 피사동사건의 주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동구조 (20a)의 경우 NP2 '鞋子'는 스스로 '丢'라는 사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동작의 변화를 겪는 대상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반면 (20b)의 NP2 '女孩'는 '哭'라는 결과사건에 대해 주체가 되어 또 다른 피사동사건을 수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동의 의미구조가 성립된다.

(21) a. 大风吹倒了电线杆。
세찬 바람이 불어와 전봇대를 쓰러뜨렸다.
b. 狗们吃腻了羊, 就向猪群发起进攻。
개들은 양을 먹다 질려서 돼지 떼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다.
(BCC 코퍼스)

이수진(2016:158)은 현대중국어에서 동사와 그에 상응하는 보충요소들은 어휘상이 요구하는 의미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동사자체의 성질이 동작동사이든 정태동사이든 만약 동사가 사건의 사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피동문으로도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하나의 사동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원인과 결과라는 사역적 의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동 구조가 사건을 피동문으로 범주화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RVC형식과 피동형식을 비교해 보자.

(21)′ a. 大风吹倒了电线杆。→ 电线杆被大风吹倒了。
b. 狗们吃腻了羊。→ *羊被狗们吃腻了

17) 김기혁(2010:148)재인용.
18) 김기혁(2010:149)의 도표를 참조하여 작성.

이러한 사동문과 피동문과의 전환관계를 생각해 볼 때, RVC 사동문의 피동화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바로 피사동주의 높은 '피영향성'과 관련이 있다. '피영향주' 논항을 문두에 위치시키는 피동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어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만큼 높은 피영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동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피사동목적어 성분의 관점에서 보면 행동이나 영향이 사동주로부터 옮겨오게 되고 이에 대한 피영향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RVC 사동문에서 피사동주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타동구조의 경우 피동문으로의 전환이 어려운데, 타동문의 NP2는 NP1의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관여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동문의 주어 논항으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 관계를 통해서도 두 구문의 의미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RVC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RVC 타동문에 비해 높은 피영향성이라는 의미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피사동주의 피영향성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생각해보아야 할 요소가 있는데, 사동문에서 피사동주의 피영향성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통사적 요소의 개입에 따라 그 정도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熊学亮·魏薇(2014:37)는 RVC구문에서 기타요소의 개입을 통해 NP2의 피영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듯 피영향성이 높아진 RVC구문은 오직 사동의 의미구조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22) a. 他骑累了五匹马。→ * 他骑五匹马骑累了。
b. 你骑累了几匹马？→ 你把几匹马骑累了？
(熊学亮·魏薇 2014:37-38)

(22)의 예문은 NP2가 한정적 성분과 결합할 때 피영향성이 더욱 가시적이고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19] 피사동주 논항인 NP2 '马'가 한정성 성분과 결합하면, V2 '累'는 NP2 '马'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NP1과는 아무런 의미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직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구조는 '把'자구문과 동사복사문과의 전환관계로도 검증될 수 있는데, NP2의 피영향성이 높아진 RVC구문은 '把'자구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동사복사구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NP2의 피영향성이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사동의 의미구조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0]

(23) a. 他推倒了雪林姑丽。 그는 雪林姑丽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b. 太阳晒化了雪人。 태양이 내리쬐어 눈사람을 녹였다.
(BCC 코퍼스)

---

19) 熊学亮·魏薇(2014:38)는 수량사의 개입은 목적어 논항의 '受事性'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초점을 목적어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0) 물론 사동문에서 피영향성의 정도는 피사동주의 유형과 피사동주의 통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피사동주가 유정성 개체가 아닌 무정성 개체일 경우 피사동주는 피사동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지만 피사동주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정성 개체일 경우 피사동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사동주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피사동주가 피사동 사건에 대해 통제력이 없는 경우 피사동주의 피영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동구조의 RVC구문은 'NP1+V1+NP2'를 원인사건으로 'NP2+V2'를 결과사건으로 표상되는 복합사건구조이다. (23)의 의미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 '他推雪林姑丽', '太阳曬雪人'라는 사동사건은 '电线杆倒了', '雪林姑丽倒了', '雪人化了'와 같이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피사동사건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사동사건에서 사동주는 사건의 주체가 되고, 피사동주는 피사동사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동이라는 의미범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사건구조이며, 타동이라는 또 다른 의미적 범주와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동일한 통사적 양상으로 실현되는 RVC구문이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표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들의 의미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사동과 타동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그 의미구분도 쉽지 않은 탓에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는 RVC중의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에 주목하여 타동과 사동의 의미적 구분문제에 대해 논항구조와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형식의 의미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RVC 타동구조는 행위주와 대상 논항의 의미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일사건의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결과성분이 포함된 V2는 NP1을 지향하고, 행위주로부터 발생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는 대상역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RVC 사동구조는 복합사건 내에서 원인을 유발하는 사동주 논항과 이로 인해 결과사건을 발생시키는 피사동주 논항의 인과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로 인해 결과성분에 해당하는 V2는 항상 NP2를 지향할 수밖에 없으며, 피사동주는 단순히 동작을 받는 대상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동주로 인해 유발된 원인에 의해 영향을 입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결과사건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통사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는 RVC 타동문과 사동문이 서로 다른 층위의 의미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서 다양한 의미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RVC구문에 대해 보다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기혁, 「타동의 자동 함축과 사동과 피동」, 『한국어학』, 제46집, 2010.
김성주, 『한국어의 사동』, 한국문화사, 2003.
김혜경, 「현대중국어 'V-得' 결과구문의 사동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이수진 , 「중국어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叫/讓구문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47집, 2014.
이지현, 「현대중국어 능격동사 初探 — 비대격 동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0권, 2006.
이정택, 「우리말의 사동범주」, 『한글학회』, 제246호, 1999.
范 晓, 『语法研究和探索』, 商务印书馆, 2000.
何元建, 『现代汉语生成语法』, 北京大学出版社, 2011.
李 纳·石毓智, 「汉语动词拷贝结构的演化过程」, 『国外语言学』 ,第3期, 1997.
沈家煊, 「动结式'追累'的语法和语义」, 『语言科学』, 第3卷 第6期, 2004.
沈 阳·何元建·顾阳, 『生成语法理论与汉语语法研究』, 黑龙江教育出版社, 2001.
沈 阳·Sybesma, 「汉语"动补结构"的类型学特征」, 『2002年国际汉语教学学术研讨会论文集』, 2002.
施春宏, 「动结式的论元结构和配价方式」, 『语言文字应用』, 第2期, 2004.
_____, 「动结式致事的类型、语义性质及其句法表现」, 『世界汉语教学』, 第2期, 2007.
王红旗, 「动结式的述补结构的语义是什么」, 『汉语学习』, 第1期, 2001.
王玲玲, 「汉语动结结构句法与语义研究」, 香港理工大学博士学位论文, 2001.
玄 明, 「"追累"动结式与完结短语理论」, 『汉语学习』, 第3期, 2018.
熊学亮·魏薇, 「"NP V累了 NP"动结式的补语趋向解读」, 『外语教学理论与实践』, 第2期, 2014.
熊仲儒, 「动结式的致事选择」, 『安徽师范大学学报』, 第32卷 第4期, 2004.
赵 阳, 『汉语使动及其中介语表徵』, 北京大学出版社, 2006.
曾立英, 『现代汉语作格现象研究』, 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 2006.
周 红, 『现代汉语致使范畴研究』, 復旦大学出版社, 2005.
Cheng & Huang, On the Argument Structure of Compound: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Language and Language Change*, Nottingham: Pyramid Press, 1994.
Comrie, Bernard,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ition), Blackwell: Oxford, 1989.
Huang, C.-T. James, Resulatatives and Unaccusative, *Bulletin of Chinese Linguistics*, 2006.
Li, Yafei, The thematic hierarchy and causativity,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2*, 1995.
Shibatani, Masayoshi, *Syntax and semantics 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结果补语, 动结式, 致使, 使动, 作格动词, 非宾格动词
	영문	RVC-constructions, VR-constructions, Causative, Transitive, Ergative Verb, Unaccusative Verb

Ambiguity of RVCs and Establishing Conditions to Causative Constructions in Modern Chinese

Kim, Eun-Ju

This study indicates that RVC constructions, which are realized with the same syntactic patterns, represents different semantic structures, and attempts to categorize them according to semantic types. The RVC, which is classified as an 'ergative verb' and an 'unaccusative verb' in modern Chinese, forms different semantic structures such as 'intransitive,' 'transitive' and 'causative' by its argument structure and thematic role.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judge its semantic difference because the transitive construction and the causative construction have the same valency syntactically. In response, this study was proceeded by analyzing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RVC transitive constructions and causative constructions through the argument relations, the thematic roles, and the event structure of the two statements. The RVC transitive structure forms a semantic structure based on the dynamics between the agent and the theme in a single event through the argument structure of <AGENT, THEME>, whereas The RVC structure takes two arguments - <CAUSER, CAUSEE>, and constructs the semantic structure around the effect relations of Causer which Causes causation in a complex event, and Causee which inevitably generates a result event. The two constructions also differ in the semantic orientation of V2, the component of the result: Semantically, V2 is oriented toward NP1 in the transitive constructions, but it is oriented to NP2 in the causative construction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은주 / 金恩珠 / Kim, Eun-Ju		
	소 속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kej85@korea.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1월 31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